

중국 고건축 기행(완)

Travels of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산서성(山西省)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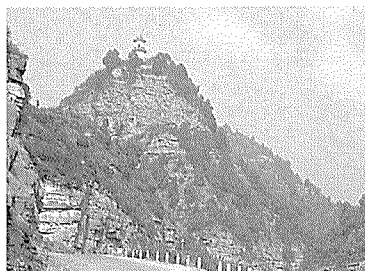
김도경 /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수료
by Kim Do-Kyoung

淨土宗의 聖地 玄中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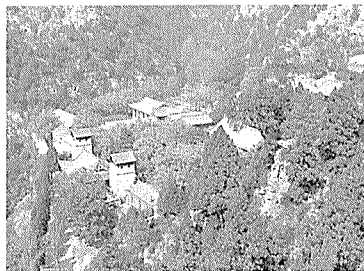
交城은 太原의 서남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이다. 太原에서 交城까지는 버스를, 다시 玄中寺까지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였다. 玄中寺는 지세가 험한 산속에 계곡을 끼고 위치해 있다. 힘겨운 듯 오토바이의 시동이 자주 꺼진다. 길 옆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진다. 山西고원에서는 보기드문 모습이다. 아스팔트길이 반듯하게 펼쳐진다. 중국의 산간오지에 이렇게 도로 사정이 좋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계곡을 따라 꾸불꾸불하게 난 도로를 오르다 보니 앞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다. 그 정상에는 탑 하나가 세워져 있다. 탑이 있는 산봉우리를 돌아서니 玄中寺 입구이다. 계곡이 두 갈래로 산을 들고 있고, 그 계곡 사이의 산에 玄中寺가 위치하고 있다.

北魏 延興2년(472년)에 창건된 玄中寺는 '石壁寺'라고도 부른다. 사방으로 절벽이 둘러쳐져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창건 당시 縣讎大師가 이곳에서 淨土宗을 연구하여 이름을 날렸으며, 제자 道綽이 그를 계승하였다고 한다. 두 분 모두 정토교에 매우 통달한 승려로 추앙받는 분이다. 唐 貞觀년간에 절을 중수하고 '石壁永寧禪寺'로 개명하였고, 定款15년(641년)에 유명한 승려 善導가 이곳에서 정토종에 귀의하였다. 후에 일본의 승려 親鸞이 縣讎의 법맥을 접수하여 일본에 정토종을 전파하고 淨土眞宗을 설립하였다. 그래서 현재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 玄中寺를 祖宗으로 삼고 있고 많은 일본인들이 찾아온다고 한다. 진입 도로가 깨끗하게 포장된 이유를 알 듯하다.

玄中寺의 배치는 일반적인 중국사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남북 중심축에 天王殿 - 大雄寶殿 - 西方聖境 - 千佛閣이 순서대로 산의 경사에 따라 단차를 이루며 배열되어 있다. 각 전각의 양옆으로는 그에 따른 配殿들이 있어서 院落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절의 입구를 알리는 牌樓만은 앞쪽의 계곡으로 인해 터가 좁은 까닭으로 중심축산상에 위치하지 못하고 寺域앞 동쪽으로 빗겨 위치하고 있다. 天王殿 앞에는 照壁이 있다. 千佛閣을 제외한 주요 건물들은 모두 淸 同治 와 光緒년간에 화재를 입어



交城 玄中寺 진입전경 : 깔끔하게 정리된 진입도로를 들어가다 보면 계곡을 끼고 있는 산봉우리 정상에 秋容塔이라고 불리는 2층탑이 보인다.



交城 玄中寺는 山西省에서는 보기 드물게 울창한 숲속 계곡을 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石壁寺라 부르기도 하였다.



太谷 光化寺 大雄寶殿 : 마침 공사중이어서 안에 들어가 볼 수 없었다. 추녀마루가 매우 짙어 팔작집이면서도 맞배집과 같은 비례를 지니고 있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한다.

훼손된 후 1955년에 중건한 것이라고 한다. 절 동쪽 산정상에 2층의 8각형 전탑 한 기가 있다. '秋窓塔' 이라고 부르는 탑으로 표면을 흰색으로 칠해 놓았다. 1층과 2층에 감실이 있는 中空形으로 원래는 내부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절을 내려온다.

다시 交城을 거쳐 淸徐縣으로 나와 太谷으로 이동한다. 淸徐에서 太谷으로 가려면 도중에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막상 버스에서 내리고 보니 다닌다던 노선버스가 도대체 울 줄을 모른다. 한참을 기다리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던 트럭을 얻어타고, 다시 트랙터로 옮겨타면서 해질 무렵에야 太谷에 도착하였다. 트럭과 트랙터는 모두 석탄을 나르는 차량이다. 석탄더미위에 올라탔다가 내렸으니 그 물골이 상상하고 남을 정도이다. 太谷시내까지는 걸어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걸으면서 보이는 시가지는 옛 모습을 상당히 간직하고 있는 듯하여 흥미롭기만 하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풍스런 거리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오늘도 역시 허름한 초대소에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한다. 초대소 앞 식당에 들러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메뉴판에서 南韓燒烤類 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이 외딴 곳에서 우리의 음식을 접하게 될 줄은, 뜻밖의 일이었다.

宋〈營造法式〉의 기법을 간직한 太谷의 光化寺 大雄寶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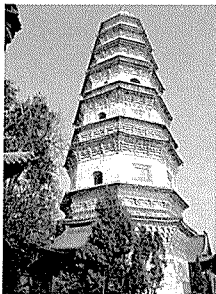
光化寺는 太谷縣 중심에서 서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白城鎮이라는 마을에 자리잡고 있다. 唐 貞觀13년(639년)에 창건하면서 隆興寺 라고 하였다가 宋 咸平2년(999년)에 중수하면서 '光化聖寺'라 개명하였다. 元 泰定3년(1326년)에 다시 중수한 이후 明·清代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大雄寶殿과 그 앞 좌우의 配殿이 있는데, 配殿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대웅보전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철창으

로 된 대문을 잠가놓은 채 대웅보전을 수리하고 있었다. 안에 들어가 보고 싶어 한참을 교섭하였으나 허사였다. 결국 담장 밖 주변에서 외관만을 둘러볼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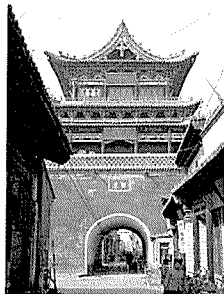
대웅보전은 정면5칸, 측면4칸으로 앞쪽의 한 칸은 덧달아낸 퇴간으로 하고 앞에서 두 번째 기둥열에 창호를 달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祠堂이나 大成殿 등 유교 제례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면구성이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인데, 추녀마루에 비해 내림마루가 훨씬 커서 맞배집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너무 짧은 처마로 인해 입면비례가 어색하기만 하다. 기둥 상부는 둥글게 모를 접는 편수깎기를 하였다. 창방위에 설치한 평방은 운두가 매우 낮다. 평방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기둥상부에만 설치하였다. 공포의 외관은 5鋪作(외2출목)으로 單栱單下昂重栱造이다. 주두는 굽을 곡면으로 깎았다. 끝부분 윗면을 오목한 곡선으로 깎은 琴面昂 형식의 下昂은 挿昂으로 보인다. 下昂의 외단은 琴面昂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첨차의 단부는 네 단으로 모를 죽여놓은 4瓣券殺의 수법을 보이고 있다. 귀포에는 鴛鴦交手栱을 사용하였으며, 도리는 단면이 방형인 檁檐方을 사용하고 있다. 기둥과 평방, 그리고 공포의 모습은 北宋代의 〈營造法式〉에 설명된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 외에 합각부의 현어와 박공널 또한 〈營造法式〉의 기법과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인다.

太谷 普慈寺 白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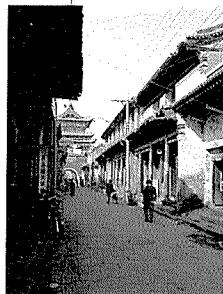
普慈寺는 太谷시내 서남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다. 普 泰始8년(272년)에 창건되었는데, 당시의 이름은 '無邊寺'였다. 北宋 治平年間(1064-1067년)에 중수하면서 '普慈寺'로 개명하였다. 이후 北宋 元祐6년(1090년)에 수리하면서 탑을 지었는데, 벽면에 흰 색을 칠해놓았기 때문에 '白塔'이라고 부른다. 寺域은 그리 넓지 않으며, 폭이 좁고 길이가 깊은 길쭉한 구성이다. 중심축선상에 앞에서부터 「山門·樂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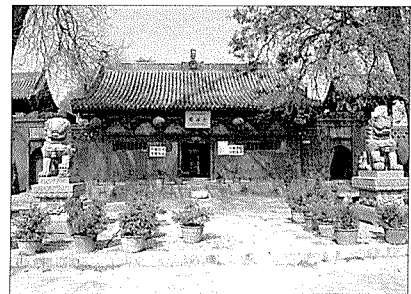
太谷 普慈寺 白塔 : 普慈寺의 중앙에 서있는 백탑은 각 층 처마의 공포를 표현한 방법이나 내부 구조가 宋代의 塔塔의 특성을 보인다.



太谷 鼓樓 : 중국에서는 각 縣城에 이와 같은 鼓樓를 세웠다. 縣城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설이다. 지붕에는 여러가지 색을 입힌 우리기위를 사용하여 극도로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太谷 市街 : 鼓樓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있는 街路변에는 아직도 清代의 건축물이 남아있다. 우리의 문화재 보존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平遙 鎮國寺 天王殿

白塔 配殿-大殿」을 배치하였다. 大殿 앞 좌우에 配殿이 있고, 白塔 좌우에도 2층의 건물이 있어서 각각의 院落을 구성하고 있다. 宋代에 건축된 白塔을 제외한 건물들은 모두 清代에 건축된 것이다.

白塔은 절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절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건물임을 알 수 있다. 8각형 평면에 외관은 7층의 樓閣式으로, 높이는 50m에 이른다. 각 층마다 처마 아래에 공포를 구성하였고, 平坐를 두었다. 각 층에는 홍예문을 두었으며, 그 밖의 벽에는 살창을 조각하여 놓았다. 내부는 空洞形으로 1층 상부는 볼트(vault)를 구성하여 천장을 구조하였다. 2층 이상은 각 층마다 마루를 깔아 바닥을 만들었고 나무계단을 두어 최상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唐塔의 中空式에서 宋塔의 實心式으로 변해 가는 과도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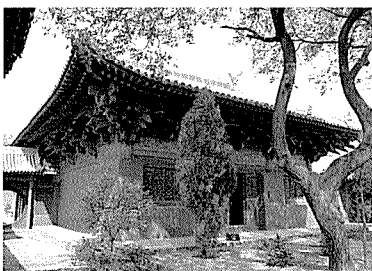
清代의 거리풍경을 간직한 太谷市街

太谷시내는 清代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발길을 鼓樓로 돌린다. 아니나 다를까 鼓樓옆 한 모퉁이에는 이곳이 보존지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었다. 鼓樓는 明·清代 縣城마다 있던 시설물이다. 太谷시의 鼓樓는 清代건축의 화려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清代건축의 화려함은 특히 지붕에서 돋보인다. 가지각색의 유약을 발라 구워낸 유리기와로 지붕을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 鼓樓 하부는 사방으로 통하는 볼트구조의 통로가 '卍' 자형으로 뚫려있다. 그 주변으로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街路가 펼쳐진다. 가로에 면한 건물은 대부분 2층으로 목조와 磚造를 혼합한 구조이다. 지붕은 맞배지붕과 유사하지만 측면으로 처마가 돌출하지 않았다. 중국인들이 '硬山'이라고 부르는 형식이다. 1층은 상점, 2층은 주거용이다. 1층에 난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서면 주거용 건물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발로 뛰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예정에 없던 수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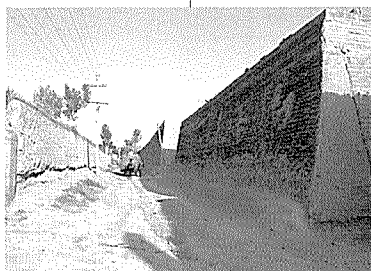
五대의 목조건축, 平遙 鎮國寺 萬佛殿

鎮國寺는 平遙縣城에서 북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郝洞村이라는 마을에 있다. 외지에서 이곳으로 올 때는 同蒲鐵路상에 위치한 洪善역에서 하차하면 된다. 洪善역에서 북쪽으로 약 1km정도 떨어진 황토고원에 鎮國寺가 자리 잡고 있다. 드넓은 평원에 자리하고 있어서인지 작지 않은 절이 왜소해 보이기만 하다. 五代시기 北漢 天會7년(963년)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남북중심축선상에 天王殿-萬佛殿-三佛樓를 배치하고 그 좌우에 廊廡와 配殿을 두어 앞뒤로 두 개의 院落을 구성하고 있다. 山門인 天王殿 좌우에는 鍾樓와 鼓樓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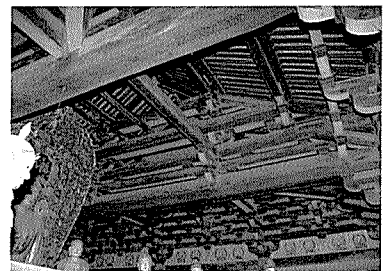
중심건물인 萬佛殿은 清 嘉慶20년(1815년)에 창건시의 모습대로 중건하였다고 한다. 五대의 건축수법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중국목조건축사상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조그마한 규모인데 반하여 공포의 크기가 매우 커서 기본수 같은 기형적인 비례를 지니고 있다. 공포는 7포작(4출목) 雙抄雙昂의 偷心和 計心이 혼합된 구조이다. 下昂의 끝부분은 윗면을 직선으로 비스듬히 깎아낸 批竹昂 형식이다. 창방 위에 평방을 설치하지 않았으면서도 柱間에 공포를 두었다. 주심포 형식에서 다포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수법이라 할 수 있다. 柱間包는 5포작(외2출목) 雙抄의 구성으로 주심포보다 간단한 형식이나 외목도리가 두 개인 점이 특이하다. 내부에는 많은 소장들이 봉안되어 있다. 萬佛殿 좌우에는 廊廡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각종 神의 雕像을 봉안하였다. 또한 이 안에는 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20여개의 비석이 있다. 萬佛殿의 양측면 벽 뒷쪽 부분에 연해서 담장을 쌓고 그 담장에 원형으로 개구부를 뚫어 문을 만들었다. 이 문을 통해 들어간 萬佛殿 뒤편은 三佛樓 영역이다. 중앙에 목조와 磚造를 혼합한 2층 건물인 三佛樓가 있는데, 2층 부분이 실제적인 佛殿이다. 내부에 法身佛(毘盧遮那佛), 報身佛(盧舍那佛), 應身佛(釋迦牟尼佛)이 봉안되어 있고, 좌우의 벽면에는



平遙 鎮國寺 萬佛殿: 세간의 조그마한 규모에 비해 7포작의 공포구성은 지나치게 커 보인다.



平遙 慈相寺 주변 마을: 황토고원, 황토를 이용한 굵지 않고 옛 법에 말린 벽돌을 사용하여 두꺼운 담장을 쌓고 이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산다. 비가 적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平遙 鎮國寺 萬佛殿 내부: 보를 겹겹히 쌓아올린 복잡한 구성을 하고 있다. 보 아랫면에는 종 墨書銘을 새겨놓았다.

明代の 벽화가 보존되어 있다. 三佛樓 앞 동쪽에는 地藏殿이 있고 서쪽에는 觀音殿이 있다.

平遙 慈相寺

鎭國寺에서 동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역시 황토고원의 약간 구릉이 있는 평원위 翼郭村이라는 마을 한쪽에는 慈相寺가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에는 성벽처럼 높디랴게 쌓아올린 담장과 이 담장에 의지하여 窯洞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다. 절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를 태워다준 오토바이택시 운전사가 열쇠를 관리하고 있는 할머니를 불러준다. 그 할머니는 우리 일행을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방금 전에 일본인들이 다녀갔다고 한다. 짐차를 타고 여섯 명이 왔었는데, 大殿과 塔을 자세히 살펴 보고 갔다는 것이다. 이 외딴 곳까지 조직적으로 조사하고 다니는 일본인들의 열성과 조직력이 부럽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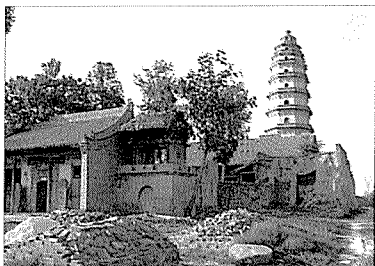
慈相寺의 옛 이름은 '聖俱寺'였다고 한다. 宋慶歷年間에 無名祖師의 유골을 봉안하기 위해 寶塔 하나를 건축하였고, 皇祐3년(105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宋代末에 병화로 파괴되고 大殿과 山門만이 남게 되어 金天會년간에 중건하였다고 한다. 慈相寺에는 현재 남쪽으로부터 山門-中門-大殿-塔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있다. 山門의 형식이 특이하다. 앞에서 보면 일반적인 山門의 형식과 비슷하지만 건물 하부에 볼트구조로 된 긴 통로가 있다. 후면의 구조는 벽체가 상당히 파손되어 있어서 원래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특이한 용도로 사용된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劇을 공연하는 戲臺로 사용되었던 듯 한 느낌이 든다. 山門을 들어선 마당 좌우에는 窯洞이 있다. 숙소로 사용되었던 듯 하나 현재는 마구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쪽에 中門이 있다. 원래는 이 문이 실질적인 山門이었을 것이다. 내부에는 四天王像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다. 폐허처럼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문위에 새겨진 붉은 별이 시

선을 끈다. 山門 좌우로는 鍾樓와 鼓樓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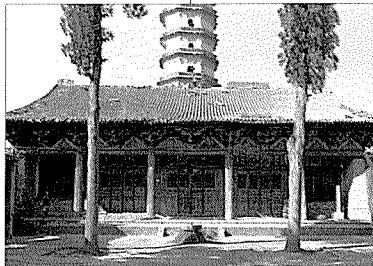
중심 건물인 大殿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전면의 한 칸을 개방하여 놓고, 두 번째 기둥열에 창호를 달았다. 光化寺 大雄寶殿과 비슷한 평면구성이다. 가구는 전면의 한 칸을 제외한 세 칸이 앞뒤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맨 앞의 한 칸을 퇴간으로 내달았다. 맞배집으로 구성된 大殿은 상부를 등글게 편수짜기 한 기둥상부에 창방을 올리고 다시 나지막한 평방을 올린 위에 공포를 설치하였다. 공포는 5포작(외2출목) 單杪單昂 重栱計心造의 구성으로 첨차의 단부를 材軸에 직각이 아닌 斜角으로 잘라놓았다. 전체적으로 金代에서 元代로 넘어가는 시기의 수법을 지닌 건물이라고 생각된다. 앞쪽의 창호를 달아맨 기둥들은 方柱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것이 특이하다. 절 맨 뒤에는 팔각형의 9층 전탑 한 기가 있다. 높이가 약 45m로 하부에는 조적식 기단이 있다. 1층 탑신 주변으로 塼造의 圍廊을 둘러놓은 점이 특색이다. 탑 정면에서 凸형으로 돌출한 抱廈가 있다. 각 층의 처마는 전돌을 내쌓는 방식으로 되어 있을 뿐 공포를 표현하지 않고 있어서 형식이 간략화된 宋代 이후의 탑임을 알 수 있다. 내부는 中空式으로 1층과 최상층 천장만 전돌로 궁륭(돔)을 구성하였을 뿐, 2층 이상은 각 층에 목조로 마루를 깔고 나무계단을 두어 최상층까지 오를 수 있는 구조이다. 현재는 파손이 심하여 마루와 계단이 대부분 파괴되고 2층까지만 오를 수 있다. 각 층의 내부 벽면에는 벽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洪善마을의 개량형 窯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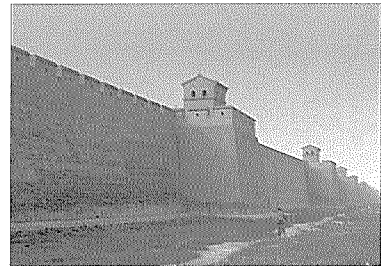
저녁무렵 洪善마을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일행인 중국인 학생 黃偉와 오토바이 운전사 사이에 무슨 말인지 오고간다. 운전사가 오늘 밤 자기 집에서 뉘게 해줄터이니 내일 平遙 시내에 갈 때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라는 것이다. 四川省에서의 인육만두 사건이 생각나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인의 실생활을 좀 더 자세



平遙 慈相寺:스님들은 긴데 없고 폐허로 방치해 둔 모습이 세월의 무상함을 얘기하는 듯 하다.



平遙 慈相寺 大殿



平遙縣城:明代的 城制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平遙城은 우리의 음성과는 달리 실제 전투에 사용되는 성이다.

히 볼 수 있는 기회인 듯 하여 용기를 내어 제안을 받아들였다. 가족은 40대 후반 정도의 부부와 딸 둘로 네명의 가족이 사는 집 치고는 꽤 넓은 편이다. 남편은 오토바이 택시를 몰고 아내는 농사일을 한다. 돼지와 닭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돼지는 확장실 아래에서 키운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똥 돼지이다. 집의 구조와 형태는 窯洞을 현대식으로 개량한 것이다. 중앙에 현관 겸 거실이 있고 그 좌우로 방이 있다. 방에는 창문쪽으로 중국식 온돌인炕(炕)이 있다. 10월 중순의 제법 차가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때지 않는다.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잠자리가 축축하다. 습기가 별로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많은 습기가 올라왔나 보다. 식사는 대문 바로 앞에 붙어있는 건물에서 한다. 난방 뿐 아니라 취사용 연료로도 석탄을 사용한다. 석탄이 흔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리라. 저녁에 이곳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석탄 타는 메꿔한 냄새로 머리가 어지러웠다. 호떡처럼 생겼지만 속에 아무 것도 들어있는 않은 빵과 쌀죽, 그리고 단무지 비슷한 반찬이 저녁상에 오른 것이 전부였다. 쪼그리고 앉아야만 하는 나지막하고 빈약한 의자, 무릎높이보다도 낮은 나지막한 탁자, 음식을 먹는 자세가 불편하기 그지없다.

明代의 縣城, 平遙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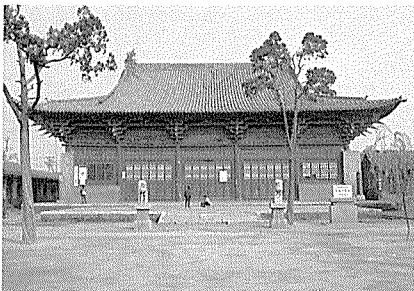
平遙城에 도착한 때는 아침안개가 걷히기 전 이른 아침이었다. 안개속에서 뿌옇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平遙城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平遙城은 明 洪武3년(1370년)에 건축된 山西城에서는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도 큰 縣城이다. 明·清 양대에 걸쳐 보수되었으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는 明代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성의 평면은 방형으로 전체 성벽의 길이는 6.4km, 성벽의 높이는 12m 내외이다. 흙을 다져 쌓아올린 성벽의 외면은 전돌을 쌓아 마감하였다. 성벽위에는 여장(성가퀴)이 있고 방형의 총안을 뚫어 놓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원성에서와 같은 근총안과 원총안의 구분

이 없이 원총안만을 두었다. 성벽 밖으로는 해자를 둘렀는데, 깊이와 너비 모두 4m 정도이다. 동서남북 네 면에 성문이 있다. 원래 성문위에는 門樓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소실되었다. 성문밖으로는 모를 접은 방형의 옹성을 쌓아 방어에 유리하도록 하였다. 성벽에는 雉와 砲樓 94개가 있다. 성벽 네 모서리에는 閣樓가 있었으나 중일전쟁 때 일본군의 포격으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성벽 안 市街는 남북 방향의 도로 하나와 동서 방향의 도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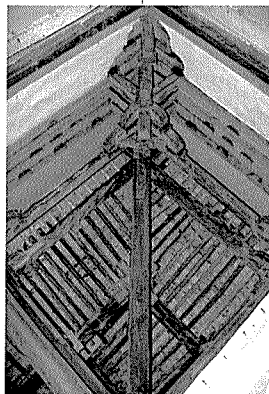
중국의 縣城은 우리의 邑城과 비슷한 개념의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邑城이 실제 전투를 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의 개념을 지니지 않은 반면에 중국의 縣城은 실제 전투에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수원성은 이러한 중국의 城制를 참조하여 지은 성이라고 한다. 平遙城 안 市街와 市樓 및 상점 등은 明代 이래의 원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태谷의 옛 가로와 더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平遙文廟 大成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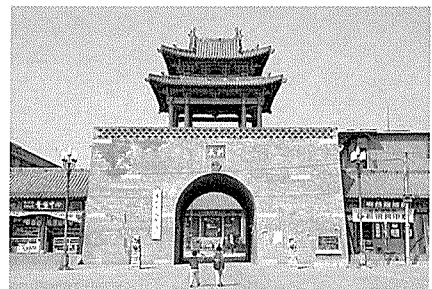
平遙文廟는 平遙縣城 안 雲路街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로 사용되고 있는데 마침 학생들이 구령에 맞추어 우리의 국민보건의체조와 같은 체조를 하고 있었다. 배치는 중심축을 설정한 위에 앞에서부터 「靈星門-大成門-大成殿-明倫堂-亭-尊經閣」을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좌측에 東學, 서측에 西學을 두었다. 중심축과 좌우 동서측의 맨 앞에는 牌坊을 두었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明·清代에 중건된 것이나 大成殿만은 金 大定3년(1163년)에 중건된 것으로 平遙文廟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중국에는 많은 文廟가 있으나 대부분은 후대에 중건된 것으로 오래된 건물이 거의 없다. 河北省 正定の 文廟 大成殿이 五代의 건축이고, 山東省 曲阜의 孔廟에 있는 金代의 碑亭을 제외하면 金代의 大成殿은 이 건물이 지금까지 알려진 오래된 실례이다. 大成殿은 전돌로 쌓은 나즈막한 기단위에 세워져 있는데, 앞쪽으로는 넓직한 방형의



平遙文廟 大成殿 : 중국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文廟 건축에 속한다.



平遙文廟 大成殿 내부 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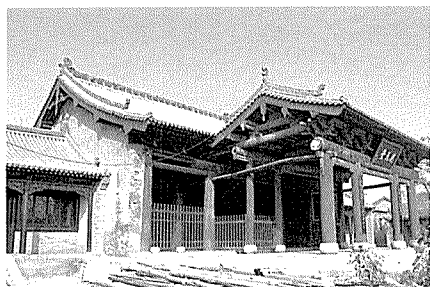
雷州文廟 : 중국에서 현존하는 옛날 지방의 관아건축 중 배치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月臺를 두고, 주변으로 난간을 둘렀다. 정면과 측면이 모두 5칸으로 평면은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지붕은 겹처마의 팔작지붕이다. 기둥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기둥 상부에만 설치하였다. 공포의 구성은 7鋪作(4출목)으로 雙杪雙昂의 형식이며, 計心造와 偷心造를 혼합한 구성이다. 일부 출모첨자는 단부를 교두형이 아닌 권비形으로 초각하였다. 이는 佛光寺 文殊殿과 유사한 수법으로 金代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大成殿은 柱間에 大斜梁이라고 하는 특수한 구조부재를 사용하고 있다. 遼代와 金代는 가구방법에 있어서 많은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는 시기인데, 그러한 특성이 이 大成殿에도 반영된 것이다. 내부에는 양측면과 후면에 내진부와 외진부를 구획하는 두꺼운 벽체를 두었다. 이는 중국의 文廟 大成殿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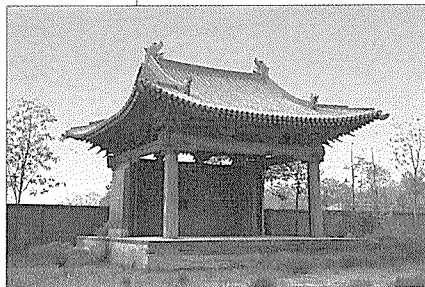
霍州署

平遙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부터는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넓은 평원은 점차 사라지고 산과 계곡이 눈에 띄는 험수가 늘어나다가 결국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 계곡을 낀 도로를 따라 달리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는 窯洞이 눈에 많이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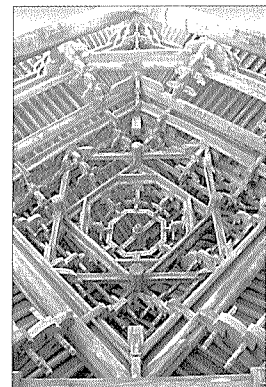
霍縣은 山西省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도시와는 달리 구릉에 위치하고 있었다. 시내에는 어김없이 鼓樓가 있다. 목적지인 霍州署는 鼓樓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霍州署의 건물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청에 해당하는 霍州시민정부의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중심축을 설정하고 엄격한 좌우대칭으로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 大門, 의문, 응도, 패방, 계석정, 대당, 이당, 내택, 정대헌, 서과방 등이 있다. 중국에 현존하고 있는 관아건축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오래된 완전한 형식을 지니고 있는 건축군이라고 한다. 중심건물은 大堂으로 元代의 건축이라고 한다. 정면 5칸의 맞배집으로 앞쪽에 건물을 덧달아낸 형식이 특이하다.



霍州署 大堂 : 내부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 전면의 기둥을 생략한 구조가 특이하다.



臨汾牛王廟 戲臺 : 극을 공연하기 위한 무대시설이다.



臨汾牛王廟 戲臺 내부의 귀접이 천장

臨汾縣 魏村 牛王廟

臨汾市는 汾河를 끼고 있는 도시로 汾河의 물을 사용하여 만든 汾酒로 유명하다. 몇 번 마셔본 적이 있는데 마시고 난 뒤 입안에 도는 향기가 별로 좋지않아 즐기지는 않는 편이다. 臨汾市에서 서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魏村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고, 그곳에 牛王廟가 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場이 섰다. 우리의 시골장 풍경을 연상시키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牛王廟는 牛王, 馬王, 藥王 세 분의 소상을 모셔놓고 제사지내는 곳이다. 방형으로 담장을 두르고 동쪽 한 모퉁이에 조그마한 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북으로 중심축을 형성하고 남쪽끝에 戲臺는 극을 공연하는 무대로 방형평면으로 된 한 칸 규모의 조그마한 팔작집이다. 원래는 元 至元20년(1283년)에 창건되었으나 大德7년(1303년)에 지진으로 파괴되어 至治元年(1321년)에 중건되었다고 한다. 전축기단위에 세워져 있는데, 후면과 양측면의 뒷부분에 벽체를 둘러 무대를 꾸몄다. 앞쪽 두 개의 기둥은 모를 죽인 방형 돌기둥으로, 기둥 정면에 모란과 花生童子를 조각하고, 측면에는 창건과 중수년대를 새겨놓았다. 少林寺 初祖庵 大殿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의 돌기둥이다. 천장을 구성한 방법이 이채롭다. 공포를 중첩시켜서 사각형의 모서리를 죽여 나가는 방법을 사용한 '藻井' 형식이다. 귀접이 천장과 같은 수법의 구성이다. 이보다 후대의 건물인 獻殿에도 같은 형식의 귀접이 천장이 채용되어 있다.